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aily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with Disability by Degree of Disability

Sun Kyoung 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C University, 47 24gil Kkachisan-ro Gangseo-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the factors influencing daily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y and suggest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ir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s. The 8th PSED was used to classify 922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ged 65 and over into the two groups, mild and severe disability. It is found that the daily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the common factors such as educational level, spouse, economic participation, income, assets, self-esteem, physical condition, helpers, and discrimination. Specifically, debt and income affect elders with severe disability, whereas assets, educational level, and helpers affect those with mild disability. In order to improve daily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y, a variety of methods should be developed such as providing economic support, expanding emotional and psychosocial health services, and reducing discrimination. Economic support is a key to support elderly with severe disability, while asset building is critical for elderly with mild disability.

Key words: daily life satisfaction, elderly with disability, degree of disability

1. 서론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장애인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장애인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장애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¹⁾은 2000년 40.3%, 2005년 43%, 2008년 47.5%, 2011년 50.5%, 2014년 52.8%로 꾸준히 증가해왔다(Statistics Korea, 2016).

장애노인의 증가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 보장구의 개발, 공공체계의 개선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의 수명연장, 그리고 노화 및 유병률에 의한 장애발생의 빈번함이라 할 수 있는데(Lee & Chung, 2014; Paik & Roh, 2012; Putnam, 2007), 이러한 요인은 장애노인의 수와 평균연령을 계속 상승하게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Kim & Ko, 2011).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인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Kim & Lee, 2013), 장애노인의 지속적

⁺ Corresponding author: Sun Kyoung Un, Tel. +82-2-2600-2545, Fax. +82-2-2600-2528, e-mail: imokurok@hanmail.net

1)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60세 이상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인 증가는 장애인에 관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장애기간이 길고,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노인성 장애인보다 더 일찍 경험하게 되며, 더 빠른 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노화와 장애의 이차적 장애로 인해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의 장애상태로 인한 신체, 심리, 사회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에 노화로 인한 제반 변화가 중첩되면서 장애인들은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Kim & Ko, 2011). 또한 장애인들은 신체적 노화가 비장애노인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Capoor & Stein, 2005; Zarb & Oliver, 1993), 신체적 노화는 사회적 노화까지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에(Kim & Kim, 2009; Baltes & Smith, 2003) 노화에 대한 준비가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경향이 있다(Lee & Chung, 2014).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비장애노인보다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Kim & Lee, 2013; Kim & Ko, 2011).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장애노인의 현황과 특성, 실태, 서비스 욕구와 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삶의 만족도, 이주차별, 직업 및 고용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장애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는 주제로서 대상별, 특정 요인별, 연구방법별로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노인은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노화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한다(Lee & Chung, 2014). 그리고 노화와 장애는 외부와의 단절과 고립을 초래하여 소외감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Kim & Kim, 2009). 특히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주요한 요인으로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장애인 차별인식, 건강상태, 경제활동상태,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도움 주는 사람 및 도움의 필요, 장애수용,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가족의 지지, 노후준비

등을 보고하였다(Ko, 2015; Choi, 2014; Kim, 2013; Park & Yang, 2013; Lee, 2013; Paik & Roh, 2012; Chun & Yang, 2012; Kim & Ko, 2011; Song, 2011).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비교(Choi, 2014; Kim & Ko, 2011), 성별에 따른 비교(Song, 2011), 장애유형에 따른 비교(Choi, 2014), 장애의 특성에 따른 비교(Lee, 2013), 비장애인과의 비교(Chun & Yang, 2012) 등을 다루었다.

장애노인과 비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연구(Chun & Yang, 2012)는 생활만족도 수준은 비장애노인과 장애노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비장애노인에게 경제활동참여, 돌봄활동, 만성질환과 ADL 등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장애노인에게 사회활동참여만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화의 이중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기능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사회활동 참여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에서의 차이에도 노화로 인해 그 차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리라 예측된다. 중증 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은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의 장애정도가 일상생활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의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갖는다.

연구문제 1.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1.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의 개념

1) 장애노인

장애노인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장애발달적 관점에서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장애노인에 대한 구분은 노령화된 장애인(Life-long Disabled Elderly)과 노인성 장애인(Lated-long Disabled Elderly)으로 구분될 수 있다(Ko, 2015; Song & Kang, 2014; Lee & Chung, 2014; Lee, 2014; Kim & Ko, 2011; Song, 2011; Yang & Shin, 2011). 즉, 다양한 이유로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현재의 노령에 이른 경우를 노령화된 장애인이라고 하며, 노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저하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를 노인성 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을 통칭해 장애노인으로 사용하고 있다(Song & Kang, 2014).

또 다른 장애노인의 정의는 연령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개념이다.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40세를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Lee & Chung, 2014 재인용),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될 때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기준에 준하여 만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Lee & Chung, 2014), 직업재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만 50세 이상을 장애노인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Park, 2007), 60세 이상의 연령에 이르는 장애인을 장애노인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Lee, 2013; Lee, 2010; Lee, 2008). 또한 가장 일반적인 노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6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장애노인이라고 정의한 연구들도 있다(Ko, 2015; Choi, 2014; Kim & Ko, 2011; Song, 2011; Kim, *et. al.*, 2009, Kim, 2003). 이와 같이 장애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고 있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의 장애노인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Lee & Chung (2014)은 장애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한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장애인의 구분을 두지 않고 65세 이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을 장애노인으로 정의한다.

2) 일상생활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생활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태도로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Choi, 2014; Paik & Roh, 2012; Song, 2011). 즉, 생활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 자신의 주관적 인지와 평가이고(Lehman, 1998),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주변환경과 변화에 잘 적응하여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기에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개념이다(Song, 2011). 또한 생활만족은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낙천적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 Lee, 2009 재인용). 이와 같이 생활만족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생활영역의 만족도를 반영한 개념으로서,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조건하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재정,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및 여가생활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Kim & Ko,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개념으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현재 하는 일, 결혼생활 및 전반적 일상생활 만족의 영역을 반영하고자 한다.

2.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ark & Yang, 2013; Chun & Yang, 2012; Kim & Ko, 2011; Kim, 2008), 배우자가 있는 경우(Kim & Ko, 2011; Paik & Roh, 2010), 연령이 낮을수록(Paik & Roh, 2012),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Lee, 2013; Kim & Ko, 2011) 장

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Song (2011)은 남녀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여성은 연령이, 남성은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여성장애인노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생활만족이 높았으나, 남성장애인노인의 경우는 연령은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ee(2013)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경제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Chun & Yang, 2012; Paik & Roh, 2012; Kwon, 2008), 노후준비가 될수록(Song & Kang, 2014), 경제적 사회계층의 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Choi, 2014; Park & Yang, 2013; Song, 2011), 주관적으로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Paik & Roh, 2012; Kim, 2008) 일상생활만족도는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노인들이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을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라 하겠다.

그리고 신체적 측면과 관련하여보면, 건강상태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Ko, 2015; Choi, 2014; Paik & Roh, 2012; Chun & Yang, 2012; Kim & Ko, 2011; Song, 2011; Kwon, 2008; Kim, 2003), 장애정도가 낮을수록(Paik & Roh, 2012; Song, 2011), 장애수용정도가 높을수록(Song & Kang, 2014; Park & Yang, 2013; Park & Kim, 2009), 일상생활능력이 좋을수록(Kim, 2008) 장애인노인들은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심리정서적 측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을수록(Ko, 2015),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Kim, 2008), 우울감이 낮을수록(Song & Kang, 2014; Chun & Yang, 2012; Kwon, 2008) 장애인노인들은 일상생활만족도를 높게 응답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참여가 높을수록(Park & Kim, 2009), 가족과의 연락이 잦거나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가 높을수록(Chun & Yang, 2012; Park & Kim, 2009; Kwon, 2008; Kim, 2008; Kim, 2003)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Paik & Roh, 2012), 가족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Song, 2011; Kim, 2003), 차별이 낮을수록(Choi, 2014; Lee, 2013) 장애인노인들의 일상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앞서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공통적인 요인은 건강에 관련한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인지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인 제약을 얼마만큼 느끼는가와 관련하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은 신체적인 노화도 비장애인노인에 비해 훨씬 빠르게 나타나게 되므로(Capoor & Stein, 2005; Zarb & Oliver, 1993), 신체적 제약이나 심리사회적 제약도 더 빠르고 심각하게 느끼며(Kim & Kim, 2009; Baltes & Smith, 2003),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Kim & Lee, 2013; Kim & Ko, 2011).

그렇다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노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노인은 어떻게 일상생활만족에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선행연구들은 장애정도가 약할수록 일상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난다고(Paik & Roh, 2012; Song, 2011) 보고하였다.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장애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장애정도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부분에 개입해야 하는지 탐색하고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은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차년도인 2008년 만 15세~75세의 장애인 중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제약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명부」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5,0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2016년 8월 현재 8차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장애인복지패널은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경제활동상태, 소득 및 가구 관련 사항과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 건강, 일상생활 도움, 하루일과, 여가, 일상생활 만족도, 노후준비, 차별경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8차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장애노인으로 연구진행을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 8차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먼저 선정하였다. 8차 데이터에서 65세 이상인 연구대상자인 장애노인은 총 922명이며, 장애정도가 중증인 연구대상자는 299명(32.4%), 경증인 연구대

상자는 623명(67.6%)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모형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참여요인을 구성하였고, 가구요인으로 자산, 채무, 수입, 노후준비를, 그리고 삶의 질 변수로 건강, 종교, 자아존중감, 도움제공자, 차별을 구성하여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의 <Figure 1>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였다.

3. 변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상생활만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일상생활만족도는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수입(용돈), 여가생활, 일에 대한 만족,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일상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기반으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nbach α =.8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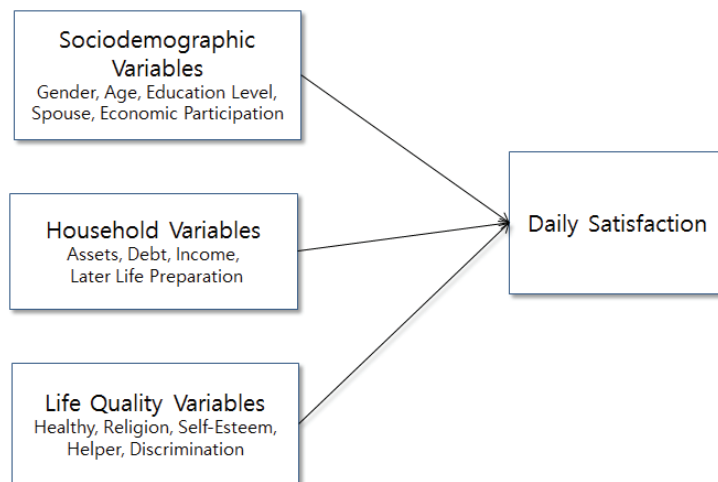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design

2) 독립변수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특성, 삶의 질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수 중 성별은 남성=1, 여성=2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1, 초등학교 졸업=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대학교 졸업 이상=5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배우자유무는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기혼은 배우자가 있음=1, 미혼, 이혼, 별거, 사별은 배우자가 없음=2로 측정하였으며,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1,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2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서 자산은 부동산, 기계설비, 농수산물, 금융자산, 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며 이를 가구원 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부채는 가구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총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이때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금, 월세, 이자 등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못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금액도 부채에 포함된다. 소득은 가구원들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사회보험급여,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는 하고 있다는 응답은 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삶의 질 특성과 관련한 변수로는 건강상태, 종교, 자아존중감, 도움제공자, 차별경험이 있는데 건강상태는 연구대상자 본인이 느끼는 현재의 건강상태로 매우 좋지않음=1, 좋지않은 편=2, 좋은 편=3, 매우 좋음=4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가 판단하는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종교는 종교보유여부에 따라 있음=1, 없음=2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움제공자는 장애로 인해 현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측정하였으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1, 없음=2로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 차별경험은 연구대상자가 본인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없음=1, 조금 있음=2, 많음=3, 매우 많음=4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차별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장애정도에 따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활동, 자산, 부채, 소득, 노후준비, 건강상태, 종교, 자아존중감, 도움제공자, 차별경험에 대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 집단, 경증 장애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가구 특성 변수, 삶의 질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장애정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장애정도에 따른 특성

연구대상인 장애노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기 전에 장애정도에 따른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Table 1〉 참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299명, 경증장애인은 623명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는 2.87점, 경증장애

Table 1. Life satisfaction by disability's level

	Severe	Mild	<i>t</i>
Mean	2.87	2.98	-3.397**
SD	.43	.45	
n	299	623	

p*<.05, *p*<.01, ****p*<.001

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는 2.98점으로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따른 장애정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중증장애노인의 성별은 남성이 176명(58.9%), 여성 123명(41.4%)으로 나타났으며 경증장애노인은 남성 324명(52.0%), 여성 299명(48.0%)으로 중증과 경증 모두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99명(33.1%), 무학 90명(30.1%), 중학교 졸업 54명(18.1%), 고등학교 졸업 48명(16.1%), 대학교 졸업 이상 8명(2.7%)의 순으로 분

석되었으며 경증장애인은 초등학교 졸업 276명(44.3%), 무학 142명(22.8%), 중학교 졸업 100명(16.1%), 고등학교 졸업 91명(14.6%), 대학교 졸업 이상 14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장애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중증 36명(12.0%), 경증 181명(29.1%)으로 경증장애노인의 경제활동이 중증장애노인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노인의 가구특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노후준비여부, 부채가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여부는 중증장애노인의 경우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33명(11.0%), 경증장애노인은 106명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with disability

		Severe	Mild	<i>x</i> ² / <i>t</i>
Gender (n=922)	Male	176(58.9)	324(52.0)	3.827
	Female	123(41.1)	299(48.0)	
Educational Level (n=922)	Lack of Schooling	90(30.1)	142(22.8)	11.433*
	Elementary School	99(33.1)	276(44.3)	
	Middle School	54(18.1)	100(16.1)	
	High School	48(16.1)	91(14.6)	
	Over College	8(2.7)	14(2.2)	
Spouse (n=922)	Presence	189(63.2)	398(63.9)	.040
	Absence	110(36.8)	225(36.1)	
Economic Participation (n=922)	Presence	36(12.0)	181(29.1)	32.493***
	Absence	263(88.0)	442(70.9)	
Age (n=922)	M(SD)	69.29(4.63)	69.28(4.64)	.031

p*<.05, *p*<.01, ****p*<.001

Table 3.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elderly with disability

		Severe	Mild	<i>x</i> ² / <i>t</i>
Later Life Preparation (n=922)	Presence	33(11.0)	106(17.0)	5.639*
	Absence	266(89.0)	517(83.0)	
Assets (n=914)	M(SD)	4289.67(8995.46)	5009.38(8135.97)	-1.209
Debt (n=922)	M(SD)	395.09(1169.56)	606.51(2139.92)	-1.936*
Income (n=922)	M(SD)	745.39(475.61)	801.23(571.96)	-1.560

p*<.05, *p*<.01, ****p*<.001

Table 4. Life quality characteristics of elderly with disability

		Severe	Mild	x^2/t
Religion (n=922)	Presence	112(37.5)	278(44.6)	4.249*
	Absence	187(62.5)	345(55.4)	
Healthy (n=922)	Very Bad	91(30.4)	115(18.5)	17.473**
	Bad	163(54.5)	386(62.0)	
	Good	45(15.1)	121(19.4)	
	Very Good	-	1(0.2)	
Helper (n=922)	Presence	175(58.5)	137(22.0)	120.475***
	Absence	124(41.5)	486(78.0)	
Discrimination Experience (n=922)	Never	118(39.5)	372(59.7)	44.793***
	Sometimes	118(39.5)	198(31.8)	
	Often	42(14.0)	38(6.1)	
	Usually	21(7.0)	15(2.4)	
Self-Esteem (n=922)	M(SD)	2.10(.49)	2.30(.53)	-5.667***

* $p<.05$, ** $p<.01$, *** $p<.001$

(17.0%)으로 경증장애노인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부채를 가구원 수로 나눈 부채금액은 중증장애노인은 약 395만 원, 경증장애노인은 약 606만 원으로 경증장애노인 가구의 1인당 부채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를 보면,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노인의 삶의 질 특성 중 종교, 건강상태, 도움제공자, 차별경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중증장애노인에서는 112명(37.5%), 경증장애노인은 278명(44.6%)로 경증장애노인의 종교를 가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는 중증장애노인에서 좋지 않다는 응답(매우 좋지 않음+좋지 않은 편임)이 254명(84.9%), 경증장애노인은 501명(80.5%)로 중증장애노인에서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장애로 인해 현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중증장애노인이 175명(58.5%), 경증장애노인이 137명(22.0%)으로 중증장애노인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증장애의 경우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였는가에 대해 중증장애노인은 전혀 없음, 조금 있음이 각각 118명(39.5%), 많음 42명(14.0%), 매우 많음 21명

(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증장애노인은 전혀 없음 372명(59.7%), 조금 있음 198명(31.8%), 많음 38명(6.1%), 매우 많음 15명(2.4%)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차별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중증장애노인은 평균 2.10점, 경증장애노인은 평균 2.30점으로 경증장애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보기 위해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 집단으로 나누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²⁾.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상관관계분석,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검토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해 보았다. 먼저 전체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간의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³⁾, 공차한계(Tolerance)의 가장 낮은 값은 .681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의 가장

2)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더미변수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유=1, 경제활동 하고 있음=1, 노후준비 하고 있음=1, 도움제공자유=1.
3)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daily satisfaction

		Total			Severe			Mild		
		B	β	t	B	β	t	B	β	t
Sociodemographic	(Constant)	2,100		8,804***	1,984		4,576***	1,910		6,520***
	Gender	.040	.045	1,431	.039	.045	.783	.023	.029	.759
	Age	-.001	-.010	-.357	-2.957	.000	-.006	-.001	-.006	-.179
	Education Level	.026	.064	2,190**	.009	.023	.419	.039	.090	2,579*
	Spouse	.100	.107	3,643***	.140	.158	2,951**	.074	.079	2,203*
	Economic Participation	-.045	-.047	-1,660	-.113	-.0886	-1,610	-.042	-.042	-1,206
Household	Assets	4,391	.083	2,797**	3,904	.082	1,454	6,031	.108	3,009**
	Debt	-2,326	-.010	-.364	-3,486	-.094	-1,788	1,282	.006	.188
	Income	6,404	.078	2,629**	.000	.164	3,062**	2,750	.035	.953
	Later Life Preparation	.057	.046	1,583	.052	.038	.701	.051	.042	1,221
Life Quality	Healthy	.156	.222	7,820***	.187	.286	5,576***	.140	1,191	5,515***
	Religion	.024	.024	.839	.022	.021	.401	.030	.031	.381
	Self-Esteem	.309	.365	12,197***	.275	.318	6,153***	.332	.338	10,694***
	Helper	.073	.078	2,572*	.066	.076	1,449	.084	.077	2,235*
	Discrimination	-.076	-.136	-4,767***	-.069	-.146	-2,924**	-.082	-.130	-3,805***
Level of Disability	.056	.054	1,838		-			-		
R ²		.398		.385			.408			
Adjusted R ²		.388		.354			.394			
F		39,522***		12,550***			29,695***			

*p<.05, **p<.01, ***p<.001

큰 값은 1.468로 나타났다. 중증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차한계(Tolerance)의 가장 낮은 값은 .661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의 가장 큰 값은 1.512로 나타났으며, 경증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차한계(Tolerance)의 가장 낮은 값은 .673이며 분산팽창요인(VIF)의 가장 큰 값은 1.485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추정치가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왜곡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은 38.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9.522, p<.001). 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는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에서는 자산, 소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의 자산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특성에서는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도움제공자, 차별경험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도움제공자가 없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증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은 35.4%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2,550). 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는 배우자유무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가구특성에서는 부채, 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채는 전체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증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삶의 질 특성에서는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차별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움제공자 여부는 중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증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39.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9.695$,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교육수준, 배우자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특성에서는 자산변수만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삶의 질 특성에서는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도움제공자, 차별경험이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과 동일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인구사회학적 결과를 비교해보면, 중증장애노인의 경우 경증장애노인에 비해 남성이 비율이 더 높고 교육수준이 더 높았지만, 경증장애노인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중증장애노인보다 높았다.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가구특성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경증장애노인이 중증장애노인에 비해 더 높은 노후준비의 비율(17%)을 보였고, 부채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삶의 질 특성 결과를 비교해보면, 중증장애노인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고, 건강상태는 더 열악하고 도움제공자가 있었으며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증장애인의 만족도(2.98)가 중증장애인의 만족도(2.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 경제활동참여의 가구특성 요인이 경증장애노인의 경우 중증장애노인의 비율보다 더 높았던 결과와 관련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증장애노인은 삶의 질 특성 요인인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차별경험이 낮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았지만, 중증장애노인은 도움제공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종교를 갖지 않은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삶의 질 특성요인의 비교결과는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가 중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보다 높은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Paik & Roh, 2012; Song, 2011)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인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대한 Lee(2007)의 연구에서는 경증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중증장애인의 자아존중감보다 낮게 보고되었으며,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 변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의 연령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중증장애노인의 경우 경증장애노인과 달리 훨씬 더 이중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자아존중감은 장애에 대한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련성을 통해 탐색될 필요가 있다(Lee, 2007)는 주장을 볼 때, 장애노인의 경우는 오랫동안 장애가 유지되고, 더 빨리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성인장애인의 자존감의 양상과 달리 경증장애노인의 자존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교육수준($t=2.190$, $p<.01$), 배우자 유무($t=3.643$, $p<.001$), 가구특성 요인으로 자산($t=2.797$, $p<.01$), 소득($t=2.629$, $p<.01$), 삶의 질 특성 요인으로 건강상태($t=7.820$,

$p < .001$), 자아존중감($t=12.197$, $p < .001$), 도움제공자($t=-2.572$, $p < .05$), 차별경험($t=-4.767$, $p < .001$)으로 발견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Park & Yang, 2013; Chun & Yang, 2012; Kim & Ko, 2011; Kim, 2008), 배우자가 있는 경우(Kim & Ko, 2011; Paik & Roh, 2010)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연령, 경제활동참여요인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을수록(Paik & Roh, 2012),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Lee, 2013; Kim & Ko, 2011)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별과 관련하여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높을수록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Chun & Yang, 2012; Paik & Roh, 2012; Kwon, 2008)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만, 노후준비가 될수록(Song & Kang, 2014)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와 본연구의 결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도움제공자, 차별경험 요인은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특성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Ko, 2015; Choi, 2014; Paik & Roh, 2012; Chun & Yang, 2012; Kim & Ko, 2011; Song, 2011; Kwon, 2008; Kim,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Ko, 2015),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Paik & Roh, 2012), 차별이 낮을수록(Choi, 2014; Lee, 2013) 장애노인들

의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 공통적으로 배우자의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차별경험의 삶의 질 특성 요인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증장애노인의 경우에는 경증장애노인과 달리 소득이 많을수록($t=3.062$, $p < .01$)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증장애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t=2.579$, $p < .05$), 자산이 많을수록($t=3.009$, $p < .01$), 도움제공자가 없을 경우($t=-2.235$, $p < .05$)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와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의 특성을 보면 중증장애노인의 경우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경증장애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자산, 도움제공자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특성과 관련할 때, 중증장애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경증장애노인의 참여에 비해 낮았던 점과 관련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경제활동참여는 노인연령에 진입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왔던 특성들이 연장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참여가 미흡했던 중증장애노인의 경우는 소득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증장애노인은 경제활동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중증장애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자산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움제공자요인의 경우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오히려 중증장애노인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움제공자 유무가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Song, 2011)와 일상생활만족도가 보통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

동하는 데에 도움제공자가 유의미한 변인이 된다는 연구(Paik & Roh, 2012)가 있었다. Song(2011)의 연구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일상생활만족도가 낮고, 도움제공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움제공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더 많았다. 이러한 연구에서 볼 때 중증장애노인의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지속되어져 왔고, 노인이 되기 이전부터 도움제공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도움제공자의 여부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도움제공자의 필요가 있는 중증장애노인의 경우와 달리, 경증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와 노화의 이중적인 변화로 인해 신체적 제약이 사회적 제약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는 일상생활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존재할 때 그 제약을 감소시킬 수 있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aik & Roh(2012)의 연구에 따르면, 도움제공자가 없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의 보통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서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Paik & Roh(2012)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일상적 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한 경증장애노인이 중증장애노인에 비해 일상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차별경험이었다. 즉,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기능의 감소를 예방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건강관련지원사업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재활과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바, 중증장애인에 대한 좀 더 체계화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및 요양보협체계의 강화를 통한 장애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증장애노인의 경우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생활기능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지원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되어온 사회적 제약이 아닌 장애와 노화의 이중적 신체변화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증장애노인들에게 도움제공자를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제약은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신체적인 건강의 개념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입으로서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고 노화에 대한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발달단계상 노년기에 필요로 하는 심리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장애노인의 자아통합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노인들은 노인으로서의 차별과 장애로서의 차별에 대한 이중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므로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신체적 의미의 새로운 장애와 노인의 중복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 교육과 제도적 접근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노인들 스스로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인식개선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수당과 연금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im(2013)의 연구는 낮은 신체기능

은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하는데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부채가 낮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높지 않고 의료비 등의 비용지출이 많아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경제적 악화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채를 감소시키고 일상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이 됨으로써 더 많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통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금지원의 확대를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교육은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여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증 및 경증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인의 경우 자신의 장애와 노화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기 쉽다. 자신이 경험하는 장애와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게 되며,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에서의 어려움이 완화된다면 자신의 장애와 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후 후속연구로서 노화와 장애가 지속적인 삶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

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활동의 참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ltes, M. M. and J. Smith. 2003. New Frontier in the Future of Aging: From Successful Aging of the Young Old to the Dilemma of the Fourth Age. *Gerontology*. 49: 123-135.
- Capoor, J. and A. B. Stein. 2005. Aging with Spinal Cord Injury. *Physical Medicine and Disability Rehabilitation Clinics on North America*. 16(1): 129-161.
- Choi, Young Kwang. 2014.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ith Disability-Focused on the Comparison by Disability Types and Gender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3: 47-68.
- Chun, Dong Il and Sook Mee Yang. 2012.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Handicapped Old Aged-Comparis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and Non-Handicapped Old Ag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7: 1-16.
- Kim, Dong Baea, Su Jin Chae, and Eun Young Park. 2009.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on Older Adult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 Medi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 41(1): 63-83.
- Kim, Go Eun and Jong Lim Lee. 2013. The Influence of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 Mediating Effect of Role Performan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9: 257-280.
- Kim, Hyeong Soo and Yong Soeb Kim. 2009. The Effect of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with Disability.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 183-215.
- Kim, Hyeong Soo. 2008.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Disability. Ph. D.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Kim, Mee Ryoung. 2013. The Effect of Pre-Older Adults'

- Successful Ag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eparation for Older Life on th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2: 257-287.
- Kim, Mi Og. 2003. A Study on Characteristic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Handicap.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1: 73-97.
- Kim, So Hyang and Shin Suk Lee. 2009. A Study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Focused on Whether the Elderly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or No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1): 309-327.
- Kim, Soo Bong and Jae Ug Ko. 2011. A Comparative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Life among the Elderly with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6: 171-186.
- Ko, Min Seok. 2015.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on Daily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ith Disability: Mediating Effect of Self-Rated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9(3): 221-232.
- Kwon, Oh Gyun. 2008. A Survey on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ith Handicap.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9: 7-32.
- Lee, Ji Su. 2007. The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Gender Comparison to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2): 89-114.
- Lee, Jung Seb. 2010.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Focused on Registration Disable Person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7: 187-212.
- Lee, Kyong Jun and Myung Sun Chung. 2014.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Elderly with Disability- A Review of Korean Scholarly Journal Articles from 1995 to 2013.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1): 1-30.
- Lee, Sang Won. 2008. A Study on Buffering Effects of In-Home Care Service on ADL Disabled Elderly's Life-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5(1): 103-119.
- Lee, Young Mi. 2013. The Study on th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Elderly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2: 35-58.
- Lehman, A. F. 1998. A Quality of Life Interview for the Chronically Mentally Ill. *Valuation Program Planning*. 11: 51-62.
- Paik, Eun Ryoung and Seung Hyun Roh. 2010.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Physical Disability-Analyzing Mediating Effect of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the Perceived Disability Discrimination.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3: 1-21.
- Paik, Eun Ryoung and Seung Hyun Roh. 2012. The Longitudinal Study on th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Elderl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6(3): 81-108.
- Park, Hye Jeon. 200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Needs among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2): 169-195.
- Park, Hyun Sook and Hee Taek Yang. 2013. The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ith Disabil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Centered on the Effect Parameters of the Disability Acceptance. *Disability & Employment*. 23(3): 153-174.
- Park, Ja Kyung and Jong Jin Kim. 2009. A Study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3(1): 163-186.
- Putnam, M. 2007. Moving from Separate to Crossing Aging and Disability Service Networks. In Putnam, M. (ed.). *Aging and Disability: Crossing Network Lin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5-17.
- Song, Jin Yeong and Yeong Mee Kang. 2014.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Later Life Preparation.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13: 21-45.
- Song, Mi Young.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n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by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1): 143-155.
- Statistics Korea. 2016.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 Yang, Hee Taek and Won Woo Shin. 2011.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255-278.

Zarb, G. and M. Oliver. 1993. *Aging with a Disability: What Do They Expect after All These Years?*. London: University of Greenwich.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고민석. 2015. 장애노인의 사회참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보건의료산업학회지*. 9(3): 221-232.

권오균. 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7-31.

김고은, 이종림. 2013. 장애노인의 이중차별경험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역할수행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9: 257-280.

김동배, 채수진, 박은영. 2009. 장애노인의 장애특성이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63-86.

김미령. 2013.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2: 257-288.

김미옥. 2003. 장애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 73-97.

김소향, 이신숙. 2009.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1): 307-327.

김수봉, 고재욱. 2011.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분석: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6: 171-186.

김형수, 김용섭. 2009. 장애노인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2: 183-215.

김형수. 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자경, 김종진. 2009.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분석. *재활복지*. 13(1): 163-186.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3): 153-174.

박혜진. 2007. 노령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특수교육저널*. 8(2): 169-195.

백은령, 노승현. 2010. 노령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3: 1-21.

백은령, 노승현. 2012. 장애인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재활복지*. 16(3): 81-108.

송미영. 2011. 남녀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31(1): 143-155.

송진영, 강영미. 2014. 장애노인의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과 노후준비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3: 21-45.

양희택, 신원우. 2011.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에 따른 장애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255-278.

이경준, 정명선. 2014. 국내 장애노인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1995-2013년 국내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8(1): 1-30.

이상원. 2008. 요보호 ADL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재가서비스 조절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5(1): 103-119.

이영미. 2013.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2: 35-58.

이중섭. 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7: 187-212.

이지수. 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9(2): 89-114.

전동일, 양숙미. 2012.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장애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7: 1-16.

최영광. 2014.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장애 유형에 따른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3: 47-68.

Received: Sep. 7, 2016 / Revised: Oct. 14, 2016 / Accepted: Oct. 21, 2016

장애정도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이들의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922명이며,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을 비교연구하였다.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으로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자산, 소득,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도움제공자, 차별경험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중증장애노인과 경증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증장애노인의 경우 부채와 소득인 반면, 경증장애노인의 경우 자산, 교육수준, 도움제공자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제적 지원,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건강서비스의 확대, 차별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장애노인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경증장애노인을 위해서는 자산형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장애노인, 장애정도, 생활만족도

Profiles **Sun Kyoung Un**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Soongsil University, Korea in 2010. She is a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C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3.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social welfare education, multicultural social welfare, children and youth social welfare and family social welfare. She has published 10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5 books including co-author article and books(imokurok@hanmail.net).

Appendix. Correlation

	Gender	Age	Education Level	Spouse	Economic Participation	Assets	Debt	Income	Later Life Preparation	Healthy	Religion	Self-Esteem	Helper	Discrimination	Level of Disability
Gender	1														
Age	.132**	1													
Education Level	-.339**	3,202**	1												
Spouse	.383**	.177**	-.237**	1											
Economic Participation	.156**	.142**	.000	.164**	1										
Assets	-.039	-.036	.178**	-.211**	-.156**	1									
Debt	-.099**	-.093**	.081*	-.121*	-.104*	.151**	1								
Income	-.133**	-.172**	.177**	-.119**	-.263**	.353**	.107**	1							
Later Life Preparation	.132**	.136**	-.143**	.148*	.138**	-.340**	.023	-.292**	1						
Healthy	-.112**	-.204**	.130**	-.102**	-.223**	.160**	-.024	.149**	-.090**	1					
Religion	.350**	.214**	-.158**	.111**	.174**	-.120**	-.088**	-.170**	.081*	-.174**	1				
Self-Esteem	-.044	-.130**	.183**	-.161**	-.302	.257**	.053	.254**	-.174**	.298**	-.138**	1			
Helper	.008	-.123**	.022	.116**	-.240**	.111**	.014	.024	-.058	.227**	-.157**	.263**	1		
Discrimination	-.004	.016	-.033	.035	.202**	-.275**	-.027	-.161**	.158**	-.149**	.134**	-.273**	-.254**	1	
Level of Disability	.064	.011	.016	-.007	-.188**	.097**	.053	.026	-.078*	.123**	-.104**	.191**	.361**	-.213**	1

* $p < .05$, ** $p < .01$, *** $p < .001$